



통일쌀 모내기는 계속된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통일염원은 식지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30여명은 2일 광주시 광산구 임국동 사호마을에서 3만3천㎡ 규모의 논에 북한 주민에게 보낼 '통일쌀' 모내기를 했다. 한 농민이 이앙기로 모를 심고 있다. /위진표기자 jrwi@kwangju.co.kr

전교조 광주지부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20년,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사업은 오는 18일까지 전시, 참여, 나눔, 문화마당 등 10여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운영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앞 로비에서 그림·만평, 사진 등을 전시하며 참여마당으로 '전교조 광주지부 스무살 생일맞이 축하 영상 공모전', '부부와 함께하는 영화관람, 제자사랑, 사랑의 장기증서 서약' 등도 펼쳐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월단체 '두동강' 참여 열기 '반토막'

5·18 29주년 행사 결산, 정부 예산 삭감 20% 취소·축소

30주년 행사 악영향 우려

옛 전남도청 별관 논쟁과 이를 둘러싼 5·18단체의 내분 등으로 인해 제 2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가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보훈처의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 전체 행사의 20%가량이 취소 또는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가 내년 30주년 기념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등이 3일 오후 5·18 3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실무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29주년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46개 행사가 치러졌으며, 참가인원은 47만2천 명으로 지난해 55만3천 명에 비해 14.6% 감소했다. 또 시는 30주년 기념사업 준비까지 포함해 올해 2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지난해보다 8천 만원을 증액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행사지원액을 지난해 1억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면서 '5·18 대동세상'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5·18 시민광장', '광주 시민 주먹밥 나누기' 등 8개는 축소됐다. 이와 관련 제2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1일부터 '30주

년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해 30주년 기념사업의 틀을 구성해왔으며, 3일 국가보훈처와 광주시, 5월 단체,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30주년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단체 간 분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행사에 대한 관심도 저조했다"고 평가한 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이 서로 협력안을 작성해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2개 고교 자사고 전환 신청

외국어고도 2곳 ... 7월 결정·내년 3월 개교

광주지역 고교 2곳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전환을 신청했다. 수년간 공모 신청과 신규 설립 등을 추진했던 외국어 고교에도 2곳이 신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마감한 결과 2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사고에는 S학원(남고)과 P학원(남고)이 신청했으며, 외국어고는 D여고와 B고를 운영 중인 H학원과 B학원이 각각 신청했다. 광주시 교육청 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를 거쳐 7월경 결

정될 전망이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다. 시 교육청은 자사고는 최대 2곳, 외국어고는 1곳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는 예초 5~6개 법인이 신청을 준비했으나 법인전입금 부담(연간 약 2억원)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매년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전환 신청을 받았다. 규모는 11개 학급에 420명 안팎이며, 남녀 공학에 최소 2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청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수업료는 일반 고교의 3배 수준(연 400만원)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자사고는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안에서 감축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등 민측사관고와 같은 자립형 사립고보다 자율성을 더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고 산학 겸임교사를 교사정원의 3분의 1까지 임용할 수도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 등은 인재의 타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43분 달돋이 15시 34분 달질 02시 02분

더위 식히는 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 한 때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한때 비	18/25°C
목포	흐림	18/23°C
여수	흐림	18/20°C
완도	흐림	18/25°C
구례	흐리고 한때 비	18/23°C
해남	흐림	18/24°C
장흥	흐림	17/23°C
고흥	흐림	17/23°C
순천	흐리고 한때 비	17/23°C
영광	흐림	18/24°C
진도	흐림	18/23°C
진주	흐리고 한때 비	18/26°C
남원	흐리고 한때 비	16/25°C
속산도	흐림	15/19°C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북서	1.0~2.0m	목포 10:32	03:46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0~2.0m	목포 23:26	16:06
남해 서부 앞바다	동~북	1.0~2.0m	여수 05:31	11:4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북	1.0~2.0m	여수 18:28	--:--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7	17/28	16/28	17/28	17/28	18/25



제3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에 백낙청 교수

제3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로 백낙청(71·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2일 "백 교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헌신한 업적과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또 "백 교수가 1966년 계간지 '창작과 비평'을 창간하고 편집인으로 활동하면



서 한국 지식인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백 교수가 정립한 '민족문화론'과 '분단체제론'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진로를 성찰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8일 전남대 개교 57주년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며 상장과 메달,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후광 김대중 학술상은 전남대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제54 호남예술제
전통의 정답예술제인 전국대회

재썩그리기 축제

2009년 호남예술제특별위원회 주최
전남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1. 행사명: 재썩그리기 축제
2. 목적: 전통의 정답예술제인 전국대회를 통해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3. 일시: 2009년 6월 10일(수) ~ 12일(금) 3일간
4. 장소: 전남대학교 문화체육관

5. 참가대상: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된 재썩그리기 예술인

6. 참가비용: 참가비용 없음

7. 시상: 재썩그리기 예술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작품상, 최우수작품상, 최우수작품상, 최우수작품상

8. 문의처: 전남대학교 문화체육관 문화체육팀 (061-270-2111)